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하형석 연구위원  
김성은 부연구위원  
이용해 전문연구위원

### 1 분석 목적 및 자료(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sup>1)</sup>

-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부모의 행동이나 성향, 성격 등은 자녀에게 영향을 줌
  -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성향, 특성, 행동 등이 자녀 세대로 이전된다는 것을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이라 정의함
  -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모의 신체적 특성은 당연히 자녀에게로 이전될 것이라고 여겨짐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과 같은 객관적인 상태는 자녀로 이전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소득<sup>2)</sup>, 교육수준<sup>3)</sup>, 건강<sup>4)</sup>과 같은 객관적인 상태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전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함<sup>5)</sup>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성향이나 특성, 행동들도 부모-자녀 세대 간 관련이 깊음
  - 타인에 대한 신뢰와 위험 회피 성향(Dohmen, Falk, Huffman, & Sunde, 2011), 성 역할에 대한 인식(Farré & Vella, 2013),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Pascual & Cantarero, 2009)와 같은 주관적인 성향이나 특성들이 부모-자녀 세대 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패턴(Waldkirch, Ng, & Cox, 2004), TV 시청시간(김우찬, 이윤석, 2009)과 스마트폰 이용시간(하형석, 2019)과 같은 행동들 또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본 NYPI Bluenote 통계 보고서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sup>6)</sup> 제1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주관적인 성향, 특성, 행동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KCYPS 2018 조사 항목 중 부모와 자녀에게 동일하게 수집된 삶의 만족도, 행복감, 건강상태 평가, 자아존중감, 그릿(Grit), 창의적 성격,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에 대해 살펴봄<sup>7)</sup>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조사개요는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nypi.re.kr/archive/](http://www.nypi.re.kr/archive/))의 “NYPI 패널조사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참조

2) Solon, 1992; Zimmerman, 1992; Gong, Leigh, & Meng, 2012; 양정승, 2012

3) Dearden, Machin, & Reed, 1997; Behrman & Rosenzweig, 2002; Plug, 2002; 최은영, 2012

4) Kahn, Wilson, & Wise, 2005; Currie & Morretti, 2007; Modin, Koupil, & Vagero, 2009

5) 소득, 교육수준, 건강 등의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측정이 용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빈번히 포집될 수 있기 때문

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2,607명, 이하 초4 코호트)과 중학교 1학년(2,590명, 이하 중1 코호트) 및 각 코호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조사 항목이 구성되어 있음

7) 삶의 만족도, 행복감, 건강상태 평가를 주관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변수로 정의하였고, 자아존중감, 그릿(Grit), 창의적 성격을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정의하였으며,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을 개인 행동을 나타내는 변수로 정의하였음

■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과 같이 부모 세대의 주관적인 성향, 특성, 행동들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가라는 일핏 보면 자명해 보이는 질문<sup>8)</sup>을 객관적인 척도<sup>9)</sup>를 통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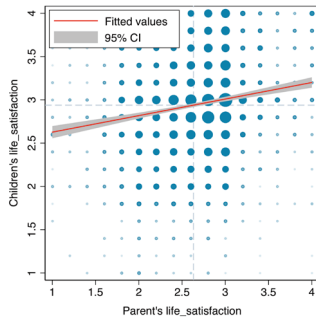
- 분석은 각각의 변수<sup>10)</sup>에 대해 산점도(Scatter Plots)와 추세선(Trend Line)을 통해 대략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살펴봄
- 추가적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가 순서형(Ordinal)<sup>11)</sup>일 경우에는 변수를 부정과 긍정 응답의 이분형(Binomial) 변수로 변환<sup>12)</sup>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sup>13)</sup>으로부터 도출되는 승산비(Odds Ratio)<sup>14)</sup>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살펴봄
- 변수가 이산형(Discrete)<sup>15)</sup>일 경우에는 선형 회귀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정식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sup>16)</sup>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살펴봄

## 2 주관적인 성향의 부모-자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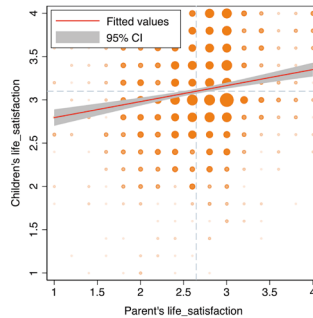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 행복감, 건강상태 평가의 부모-자녀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모두 부모-자녀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의 경우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평균에서는 중1 코호트가 초4 코호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여전한
- 행복감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모-자녀의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 평가의 경우에도 부모-자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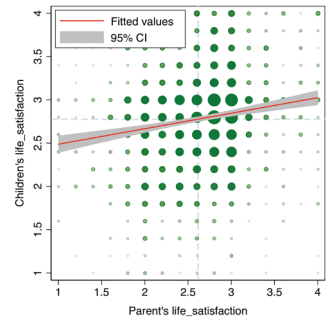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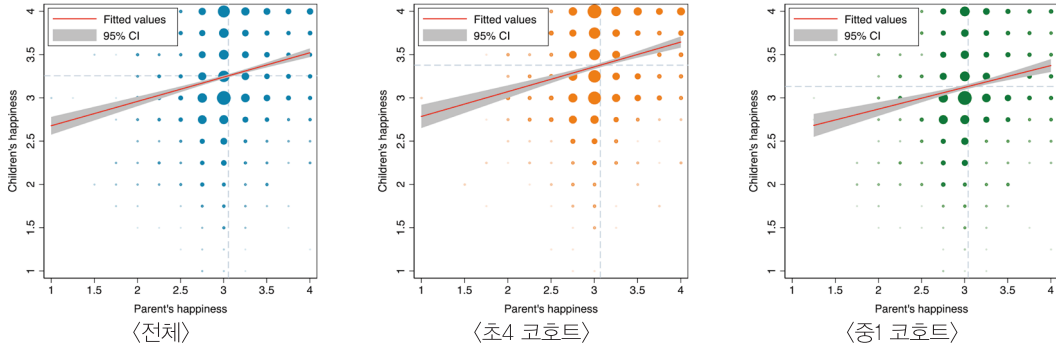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 8)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와는 달리 주관적인 성향, 특성, 행동 등은 활용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를 부모-자녀 세대에 걸쳐 동일하게 수집한 자료는 더더욱 없는 상황임
- 9) KCYPS 2018은 '세대 간 이전'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동일하게 수집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
- 10)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변수인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Grit), 스마트폰 의존도의 경우에는 구성된 문항 전체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중 역(Reverse)으로 질문한 문항은 역코딩하여 평균을 계산함
- 11) 삶의 만족도, 행복감, 건강상태 평가, 자아존중감, 그릿(Grit), 스마트폰 의존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매우 부정, 부정, 긍정, 매우 긍정)로 측정하는 순서형 변수이고, 운동시간은 5개 선택지(0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로 측정하는 이산형과 순서형이 혼합된 변수임
- 12) 부정 응답을 0, 긍정 응답을 1로 변환하였고, 운동시간의 경우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0시간 응답을 0, 운동을 1시간 이상 하는 나머지 응답을 1로 변환함
- 13) 부모 특성에 따른 자녀 특성의 관계를 보고자 함이므로 부모 변수를 독립변수( $X$ )로 사용하고, 자녀 변수를 종속변수( $Y$ )로 사용함
- 14) 로지스틱 회귀분석( $\ln(\frac{p}{1-p}) = \alpha + \beta X + \varepsilon$ ,  $p = \Pr(Y=1)$ ,  $\varepsilon \sim iid N(0, \sigma^2)$ )을 통해 도출된  $\beta$ ( $= \ln(Odds Ratio)$ )에 자연로그의 밑( $e$ )을 취한 값으로, 부모가 긍정 응답일 때 자녀가 긍정 응답일 승산이 부모가 부정 응답일 때보다  $Odds Ratio(=e^{\beta})$ 배 높다고 해석함
- 15) 창의적 성격은 제시된 30개의 형용사 중 본인을 잘 표현하는 형용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변수로, 창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18개의 문항에는 (+)점을 부여하고 비창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12개의 문항에는 (-)점을 부여하여 합계를 계산한 변수임 (-12점부터 +18점까지 1점 단위의 값을 가짐)
- 16) 선형 회귀분석( $Y = \alpha + \beta X + \varepsilon$ ,  $\varepsilon \sim iid N(0, \sigma^2)$ )을 통해 도출된 추정식을  $X$ 로 편미분( $\frac{\partial Y}{\partial X} = \beta$ )한 값으로, 부모의 값이 1단위 증가할 때 자녀의 값이  $\beta$ 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함

[행복감]



[건강상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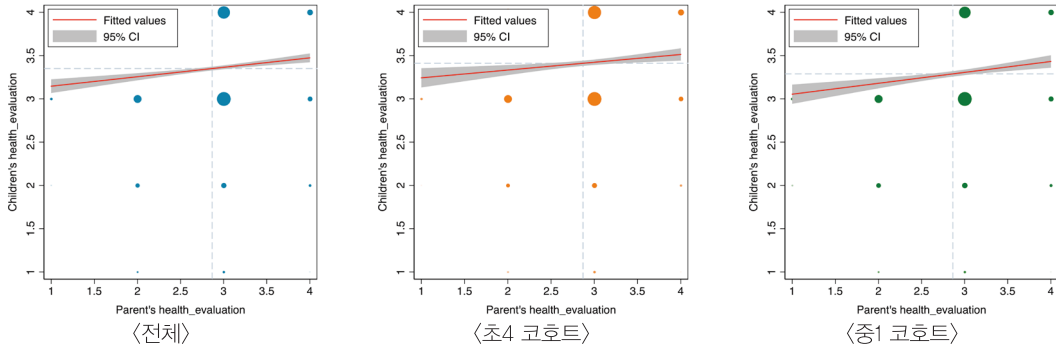


그림 1 주관적인 성향의 부모-자녀 관계

- 삶의 만족도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부모가 긍정 응답일 때 자녀가 긍정 응답일 승산이 부모가 부정 응답일 때보다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행복감 문항 중 전반적인 행복감을 파악하는 '전반적으로 나는...' 문항의 승산비는 전체 데이터 기준 3.662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모에 비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모인 경우 자녀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6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 평가의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의 Odds Ratio는 2.046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평가에 부모-자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4 코호트보다는 중1 코호트의 승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주관적인 성향의 부모-자녀 회귀분석 결과

조사 문항	전체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beta$	Odds Ratio	$\beta$	Odds Ratio	$\beta$	Odds Ratio
삶의 만족도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0.512** (0.062)	1.669	0.464** (0.096)	1.590	0.538** (0.083)	1.713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0.737** (0.076)	2.090	0.854** (0.122)	2.349	0.651** (0.099)	1.917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0.611** (0.090)	1.842	0.666** (0.161)	1.946	0.564** (0.112)	1.758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0.522** (0.063)	1.685	0.517** (0.100)	1.677	0.523** (0.084)	1.687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0.441** (0.060)	1.554	0.452** (0.093)	1.571	0.421** (0.083)	1.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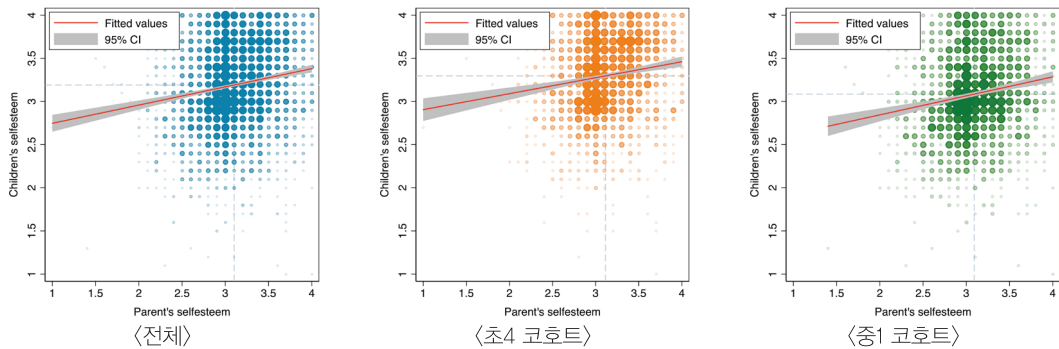
조사 문항	전체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행복감						
전반적으로 나는 ...	1.298** (0.163)	3.662	1.352** (0.268)	3.865	1.292** (0.210)	3.640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1.102** (0.140)	3.010	1.018** (0.226)	2.768	1.169** (0.182)	3.219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	0.597** (0.096)	1.817	0.581** (0.165)	1.788	0.610** (0.121)	1.840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 (R)	1.050** (0.087)	2.858	1.065** (0.132)	2.901	1.023** (0.116)	2.782
건강상태 평가						
건강상태 평가	0.716** (0.121)	2.046	0.494* (0.201)	1.639	0.843** (0.153)	2.323

주) \* $p < .05$ , \*\* $p < .01$ , 괄호 안은 표준오차, R은 역코딩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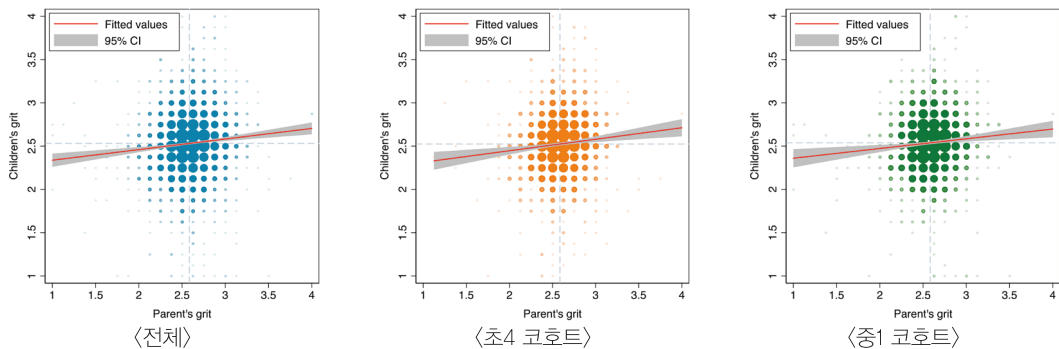
### 3 개인적 특성의 부모-자녀 관계

- 자아존중감, 그릿(Grit), 창의적 성격의 부모-자녀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성격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간에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이나, 그릿(Grit)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간 상관관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임

[자아존중감]



[그릿(Grit)]



[창의적 성격]<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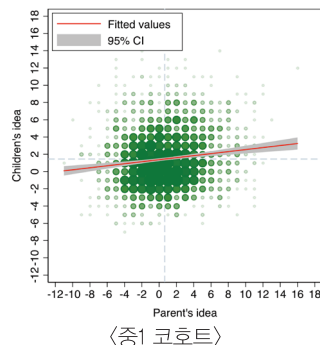


그림 2 개인적 특성의 부모-자녀 관계

-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문항의 승산비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2배에 가까워 자아존중감이 낮은 부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모인 경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비율이 10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그릿(Grit)을 구성하는 문항의 승산비는 1.5배가 넘는 문항이 거의 없어 부모의 그릿(Grit)이 높더라도 자녀의 그릿(Grit)이 높은 비율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창의적 성격의 경우 부모의 창의적 성격 점수가 1점 증가하면 자녀의 창의적 성격 점수가 0.117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개인적 특성의 부모-자녀 회귀분석 결과

조사 문항	전체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자아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0.545** (0.100)	1.725	0.558** (0.181)	1.747	0.503** (0.121)	1.654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R)	0.644** (0.107)	1.904	0.556** (0.172)	1.744	0.664** (0.139)	1.94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0.483** (0.083)	1.621	0.616** (0.134)	1.852	0.371** (0.107)	1.449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760** (0.132)	2.138	1.008** (0.195)	2.740	0.554** (0.179)	1.740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R)	0.374** (0.083)	1.454	0.304* (0.133)	1.355	0.408** (0.108)	1.504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R)	0.738** (0.109)	2.092	0.474** (0.182)	1.606	0.908** (0.140)	2.479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0.837** (0.159)	2.309	0.669** (0.244)	1.952	0.971** (0.211)	2.641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642** (0.075)	1.900	0.606** (0.105)	1.833	0.705** (0.109)	2.024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R)	0.658** (0.099)	1.931	0.637** (0.152)	1.891	0.674** (0.131)	1.962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0.713** (0.110)	2.040	0.670** (0.171)	1.954	0.777** (0.146)	2.175
그릿(Grit)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0.313** (0.057)	1.368	0.341** (0.081)	1.406	0.296** (0.080)	1.344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0.360** (0.070)	1.433	0.367** (0.104)	1.443	0.343** (0.095)	1.409

17) 창의적 성격은 중1 코호트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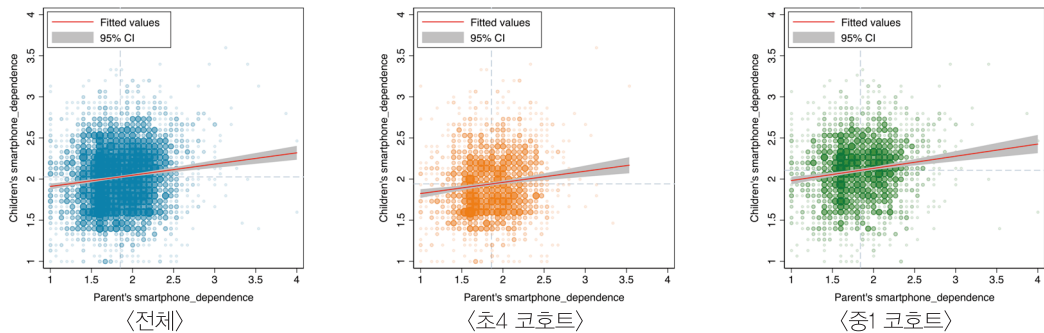
조사 문항	전체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beta$	Odds Ratio	$\beta$	Odds Ratio	$\beta$	Odds Ratio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0.239** (0.058)	1.270	0.313** (0.085)	1.368	0.202* (0.081)	1.224
나는 노력가이다	0.403** (0.071)	1.496	0.396** (0.105)	1.486	0.421** (0.098)	1.523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0.328** (0.059)	1.388	0.429** (0.083)	1.536	0.231** (0.083)	1.260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0.293** (0.062)	1.340	0.366** (0.089)	1.442	0.241** (0.087)	1.273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0.580** (0.063)	1.786	0.697** (0.089)	2.008	0.477** (0.088)	1.611
나는 부지런하다	0.464** (0.062)	1.590	0.536** (0.089)	1.714	0.402** (0.086)	1.495
창의적 성격						
창의적 성격					0.117** (0.017)	

주) \* $p < .05$ , \*\* $p < .01$ , 괄호 안은 표준오차, R은 역코딩 문항

## 4 개인 행동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하는 스마트폰 의존도와 운동시간의 부모-자녀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봄
  - 스마트폰 의존도의 경우 중1 코호트(평균: 2.107)가 초4 코호트(평균: 1.942) 보다 다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 상관관계도 중1 코호트(기울기: 0.148)가 초4 코호트(기울기: 0.13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운동시간의 경우에는 초4 코호트에서만 다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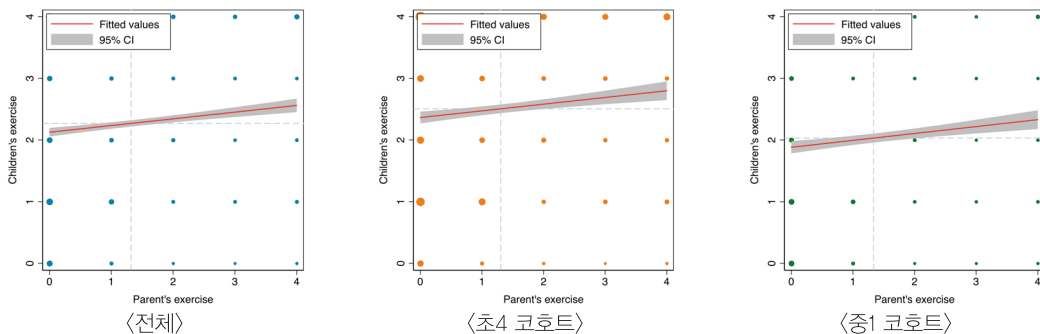


그림 3 개인 행동의 부모-자녀 관계

- 스마트폰 의존도 문항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문항의 승산비는 2.529로, 온 세상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부모에 비해 그런 생각이 드는 부모인 경우 자녀도 그런 생각이 드는 비율이 약 1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문항의 승산비는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그런 부모일 경우 자녀도 그런 비율이 10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동시간의 경우 초4 코호트의 승산비는 1.770으로 중1 코호트의 승산비인 1.499보다 다소 높아 초4 코호트 운동시간의 부모-자녀 관계가 중1 코호트 운동시간의 부모-자녀 관계보다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개인 행동의 부모-자녀 회귀분석 결과

조사 문항	전체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beta$	Odds Ratio	$\beta$	Odds Ratio	$\beta$	Odds Ratio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업무능력)이 떨어진다	0.450** (0.105)	1.568	0.531** (0.173)	1.701	0.411** (0.134)	1.508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0.385** (0.103)	1.470	0.243 (0.146)	1.275	0.552** (0.151)	1.737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0.323** (0.086)	1.381	0.528** (0.122)	1.696	0.169 (0.123)	1.18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0.444** (0.096)	1.559	0.317* (0.149)	1.373	0.614** (0.130)	1.848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0.320** (0.059)	1.377	0.379** (0.085)	1.461	0.267** (0.082)	1.30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0.928** (0.162)	2.529	0.926** (0.276)	2.524	0.887** (0.202)	2.428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0.646** (0.187)	1.908	0.628 (0.332)	1.874	0.588** (0.227)	1.800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0.661** (0.111)	1.937	0.795** (0.178)	2.214	0.563** (0.143)	1.75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0.716** (0.153)	2.046	0.573* (0.259)	1.774	0.803** (0.191)	2.232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0.458** (0.070)	1.581	0.368** (0.103)	1.445	0.531** (0.095)	1.70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0.784** (0.162)	2.190	0.804** (0.261)	2.234	0.743** (0.207)	2.10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0.362** (0.107)	1.436	0.347* (0.153)	1.415	0.394** (0.151)	1.48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0.434** (0.080)	1.543	0.310** (0.115)	1.363	0.603** (0.115)	1.828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0.285** (0.069)	1.330	0.399** (0.102)	1.490	0.282** (0.099)	1.326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0.273** (0.062)	1.314	0.290** (0.088)	1.336	0.295** (0.091)	1.343
운동시간						
운동시간	0.475** (0.090)	1.608	0.571** (0.128)	1.770	0.405** (0.129)	1.499

주) \* $p<.05$ , \*\* $p<.01$ , 괄호 안은 표준오차

## 5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아동·청소년 시기는 생애주기 중 성장과 발달의 단계로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과 같은 객관적인 상태가 발현되기 이전으로 성장과 발달 단계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성향이나 특성, 행동들의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봄
  -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과 같이 부모 세대의 주관적인 성향, 특성, 행동들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가라는 일핏 보면 자명해 보이는 질문을 객관적인 척도를 통해 살펴봄<sup>18)</sup>
- 주관적인 성향, 개인적 특성, 개인 행동 모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sup>19)</sup>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인 성향인 삶의 만족도, 행복감, 건강상태 평가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 평가가 좋을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이 높고,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성격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창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창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끈기를 나타내는 그릿(Grit)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 행동인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시간도 부모의 운동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운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부모를 닮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18) 새로운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통계의 목적이지만, 당연히 그럴 것이라라는 막연한 생각을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는 것도 통계의 중요한 목적임

19) 본 NYPi Bluenote 통계 보고서에서 살펴본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는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참고문헌

- Behrman, J. & R., Rosenzweig, M. R. (2002). Does increasing women's schooling raise the schooling of the next gener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323-334.
- Currie, J., & Moretti, E. (2007). Biology as destiny? Short-and long-run determinant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birth weight. Journal of Labor economics, 25(2), 231-264.
- Dearden, L., Machin, S., & Reed, H. (1997).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Britain. The Economic Journal, 107, 47-66.
- Dohmen, T., Falk, A., Huffman, D., & Sunde, U. (2011).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isk and trust attitud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9(2), 645-677.
- Farré, L., & Vella, F. (201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its implications for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Economica, 80(318), 219-247.
- Gong, H., Leigh, A., & Meng, X. (2012).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urban Chin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8(3), 481-503.
- Kahn, R. S., Wilson, K., & Wise, P. H. (2005). Intergenerational health disparities: socioeconomic status, women's health condition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Public health reports, 120(4), 399-408.
- Modin, B., Koupil, I., & Vagero, D. (2009). The impact of early twentieth century illegitimacy across three generations. Longevity and intergenerational health correl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68(9), 1633-1640.
- Pascual, M., & Cantarero, D. (2009). Intergenerational health mobility : an empirical approach based on the ECHP. Applied Economics, 41(4), 451-458.
- Plug, E. (2002). How do parents raise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future generations?. IZA Discussion Paper, 652, 1-16.
- Solon, G. (1992).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93-408.
- Waldkirch, A., Ng, S., & Cox, D. (2004). Intergenerational linkages in consumption behavior. Journal of Human Resources, 39(2), 355-381.
- Zimmerman, D. J. (1992). Regression toward mediocrity in economic statu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3), 409-429.
- 김우찬, 이윤석 (2009). 부모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29-55.
- 양정승 (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추정. 노동경제논집, 35(2), 79-115.
- 최은영 (2012). 소득계층별 교육과 가구소득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20(3), 23-42.
- 하형석 (2019). 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그리고 미디어 이용제한. KSDI STAT REPORT Vol.19-05. 총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